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3	7	3	8	5	9	4	10	1	11	1	12	5	13	3	14	1	15	2	16	1	17	5	18	2	19	5	20	3

1.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연기(緣起)를 깨달아 존재의 실상을 통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석가모니는 오온(五蘊)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로크와 스펜서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로크, 을은 스펜서이다. 로크는 절대군주제와 사회 계약의 목적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스펜서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정치가들이 시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았다. 한편 로크와 스펜서는 공통적으로 시민이 위정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해 줄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결정된 본질이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왕수인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왕수인의 주장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고,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왕수인은 마음의 그릇된 의념[意]을 바로잡아 밝은 덕을 밝혀야 하며,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듀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듀이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앞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이란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6. [출제의도]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이컨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참된 귀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데카르트와 베이컨은 공통적으로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인식적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동도서기론, 위정척사 사상, 동학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 병은 동학의 최제우이다. 신기선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항로는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키고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守心]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기

운을 바르게 하면[正氣],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진다고[無爲而化]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칸트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며,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픽테토스와 칸트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眞如)와 선악이 뒤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生滅)의 두 측면이 있지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지눌은 단박에 깨친[頓悟] 후에 몸에 밴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漸修]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밀과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밀,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근원으로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 것을 강조하였다.

11.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이자 세계의 창조자라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이자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한편 아퀴나스와 스피노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행위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알맞은 상태를 중용이라고 보았고, 중용이 무엇인지 판별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장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자는 만물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능력도 다르지만 만물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칠정(七情)과 사단(四端)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의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은 사단을 이(理)에, 칠정을 기(氣)에 대응시켜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각각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마르크스와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마르크스, 을은 루소이다. 마르크스는 계급이 폐지된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루소는 정부가 주권자의 집행자일 뿐이며 일반 의지의 지휘를 받는다고 보았다. 한편 마르크스와 루소는 공통적으로 사유 재산의 발생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플라톤과 모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을은 모어이다. 플라톤은 이상 사회에서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춘 소수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시민이 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공동소유이므로 사유 재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목자와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목자, 을은 칸트이다. 목자는 친소의 분별없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타국을 자국처럼 대우한다면 천하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내정에 무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목자와 칸트는 공통적으로 타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부당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주희와 정약용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정약용이다. 주희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동일한 이치를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사람의 성(性)으로 보았으며, 사람에게선 선이나 악을 자주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주희와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불선을 행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불황기에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늘려 실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였다. 한편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므로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인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